

# '입체적 연기' 고민 또 고민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였죠

사건 위주 이야기의 수동적 캐릭터 골프치트 미세한 차이 집중해 연기 엔딩 크레딧 오를 때 '해냈다' 안도 많은 관객을 만나 시리즈화 됐으면



배우 엄지원(44)은 초보 골퍼이다. 입문한 지 4개월 남짓. 골프의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듯, 관련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골프는 엄청나게 감각적이고 예민한 운동이다. 감이 중요하더라. 운동경기도 그렇지만 직관도 중요하고, 게임인 만큼 플레이 전략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연기와의 닮았다고 덧붙였다.

"대본을 해석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 해석에 따른 표현방식에서도 직관과 본능이 필요하다. 훈련이 잘 돼서 몸도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미세하게 틀리면 안 된다."

28일 개봉하는 주연작 '방법:재차의'(감독 김용완·제작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그에게는 예민함과 미세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대였을까. 엄지원은 "가장 힘들었던 작품이자 연기하기 힘든 캐릭터"를 만났다.

'방법:재차의'는 지난해 초 tvN 드라마 '방법'을 영화로 옮긴 이야기. 주요 인물과 설정을 중심으로 드라마 속 이야기의 3년 후 상황을 그렸다. '되살아난 시체'를 의미하는 재차의가 잇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에 맞닥뜨린 기자와 조현 실적 힘을 지닌 방법사의 이야기이다. 드라마에서 정의감 넘치는 신문기자였던 엄지원은 영화에서는 독립언론 채널에서 일한다. 사건에 반응하며 펼치는 캐릭터 연기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인물의 감정이 아니라 사건 위주 이야기"면서 "캐릭터를 연기하기가 모호했다.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다소 수동적인 캐릭터에 능동성을 덧붙이고, 조금이라도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미세한 요소를 찾으려 노력했다. 감독과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반응 연기도 강약을 조절하려 애썼다.

그의 이런 노력에다 정지소, 김인권 등 동료와 스태프, 마치 좀비처럼 보이는 재차의 액션연기자들의 땀이 어우러지며 영화는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관객도 이야기를 따라가는 데 무리가 없을 작품이 되었다. 엄지원은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렇게 자신은 "사건을 관객에게 연결하는 가이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방법'의 시리즈화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됐다. "배우로서 시리즈로 기억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는 "영화가 잘 마무리되고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다면 다음 작품도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런 바람을 갖는다"며 웃었다.

그런 바람이 결국 연기를 계속 해나가는 또 하나의 힘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연기는 골프처럼 언제나 "힘들다."

"그래도 한다. 재미있으니까!"

이내 '방법:재차의' 속편 출연과 박세리의 골프 개인 레슨 100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당연히 속편이다. 박세리 선수에게 레슨을 받는다고 공을 잘 친다는 보장이 없다.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학생이 실력 없으면 안 된다. 지금은 오기가 나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을 하게 되면 다시 묻히게 되겠지. 하하!"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지난해 드라마 '방법'을 이는 이야기인 영화 '방법:재차의'로 다시 관객을 만나는 엄지원. "하나의 큰 이야기"로 작품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 BTS,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유엔총회 참석

2018·2020년 이어 희망 메시지 전달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통령 특별 사절'로 임명돼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21일 박정희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5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앞서 2018년과 2020년 유엔총회에 나섰던 방탄소년단은 이번에는 환경과 빈곤, 불평등 개선과 다양성 존중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 사절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 등 미래세대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맞게 외교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사절단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탄소년단의 '퍼



지난해 9월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열린 청와대 녹지원에서 방탄소년단이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에게 청년을 위한 선물을 건네는 모습. 뉴스시스

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안무에 담긴 수어(手語)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을 지향하는 메시지는 세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한민국의 의지와도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과 2020년 유엔총회에 참석해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2018년 한국가수 최초로 뉴욕 유엔본부 신락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린 유니세프의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서 리더 RM은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피부색이 무엇이든 간에, 남성 이든 여성이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며 7분간 영어로 연설했다. 지난해에는 유엔 보건안보 후호국 그룹 고위급 비대면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청년들에게 "불확실한 세상, 함께 살아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연 기자 annoy@donga.com

## 이병헌, 'SNL코리아10' 첫 게스트로 나선다

제작진 협의노력 끝에 출연 결심 넷플릭스 영화 공동 제작도 도전

톱스타 이병헌의 '쇼타임'이 시작된다. 그동안 스크린 활동에 주력해온 그가 예능프로그램과 영화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색다른 도전을 펼친다.

20일 오후 칸 국제영화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병헌은 이르면 8월 말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가 공개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10'을 통해 변신을 시도한다. 현재 촬영 일정을 두고 제작진과 논의 중이다.

이병헌은 4년 만에 OTT로 무대를 옮겨 방송하는 시즌10의 첫 번째 게스트이다. 예능프로그램에는 좀처럼 나서지 않았지만, 유성모·권성욱·오원택 PD 등 역대 시즌 연출자들의 오랜 섭외 요청 끝에 출연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2017년 이병헌의 주연 영화 '싱글라이더' 시사회에 참석해 "꼭 모시고 싶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그를 섭외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평소 '절친'이자 진행자인 개그맨 신동엽의 꾸준한 설득도 힘을 보탤다.

21일 연출자 안상휘 책임프로듀서(CP)는 이병헌은 "연예계에서 코미디 감각이 좋기로 유명한 배우"라면서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세계적인 스타라는 점도 시즌10의



이병헌

첫 게스트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섭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병헌이 제작진의 오랜 노력을 알고 있으며, 'SNL코리아' 애시청자이기도 해 긍정적으로(출연)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헌은 영화 제작자로서 새롭게 나선다. 최근 미국 연예매체 할리우드 리포트 등은 "이병헌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아이 빌리브 인 어 씽 칼드 러브'(I Believe In A Thing Called Love)를 공동 제작한다"고 보도했다. 영화는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하는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병헌은 그동안 영화 제작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실제 제작자로 나서기는 처음이다. 이로써 2016년 '매그니피센트' 이후 5년 만에 할리우드를 밟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공개한 '비상선언'과 최근 촬영 중인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 새 주연 영화도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女기자에 49억원 아파트 증여'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의중은

SM엔터 "확인 못해"…김영란법 대상 아나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인 이수만(69) 총괄 프로듀서가 50대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약 49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비즈한국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올해 3월 전용 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빌 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외신기자 A(52)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듀서가 2015년 약 39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같은 면적의 세대가 올해 49억원에 거래됐다.

A씨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이 잘 알려졌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고 이 프로듀서가 참여한 문화산업 관련 포럼의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 프로듀서의 이번 증여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프로듀서는 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과 2014년 사별했다.

한편 이번 증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A씨가 소속된 외국 언론사 한국 지국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사 직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 연예뉴스 HOT 3

### 나훈아 부산 콘서트,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나훈아

가수 나훈아가 이번 주말 펼쳐리던 부산 콘서트의 일정을 미뤘다. 23~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려던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공연을 8월20~22일로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세 확산세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내 등 록 공연장의 체육관·공용 등 등 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는 공연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초 나훈아는 4000명 관객 규모의 콘서트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부산'을 하루 2차례 총 6회 진행할 예정이었다.

### tvN '월간 커넥트'에 美 오바마 전 대통령 출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TV프로그램에 첫 출연한다. 21일 tvN은 "8월6일 방영하는 '월간 커넥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남편으로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었던 배경과 노력을 공개한다. 연출자 공효순 PD는 "인간 오바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솔직한 인터뷰를 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조진웅 연출 데뷔작 '력사', 加·美 영화제 초청



조진웅

배우 조진웅의 연출 데뷔작인 단편영화 '력사:예고편'이 제25회 캐나다 판타지국제영화제와 제20회 미국 뉴욕아시아영화제의 국제단편 부문에 각각 공식 초청됐다. '력사: 예고편'은 한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드라마이다. '이 시대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기획의도를 담아 장편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제작됐다.